

『매일신보』의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보도 추이 분석: 대전 발발부터 동아시아 연대론 주창까지

문준호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본고는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이하 1차대전)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에 전달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독부 한글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를 중심 사료로 활용하였다. 1차대전이 발발한 직후 일본은 전쟁의 확장성에 주목하였으나, 중립을 선언하며 관망하였다. 이후 역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본은 영일동맹 이행과 동양의 단합을 내세우며 참전 논리를 구축하였고, 독일 지배 지역인 자오저우만과 태평양 군도들을 확보하였다.

『매일신보』는 1차대전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전에 관련된 평면적 보도는 이어 나갔다. 한편 영토확보 이후부터는 1차대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변조가 포착된다. 총독부는 식민통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운데, 대외적 위기를 토대로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기획도 추진하였다. 특히 전쟁의 일원으로 역할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각 단체의 원호활동을 소개하며 식민지배의 이탈 방지를 넘어 적극적 추종자를 양산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연대론을 주창하며 '황인 대(對) 백인'이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아시아인끼리 단합하자는 지역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내재한 본연의 의도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매일신보, 제1차 세계대전, 아시아주의, 황화론, 연대론

I. 머리말

산업혁명 이후 자본과 군사를 근저로 한 세계화는 다른 의미로 서구화였다. 구미 열강은 그들이 설정한 근대 문명의 이식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며, 진보하는 세계에 대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 낙관주의의 팽배 속에서 각국은 군비증강을 지속하였고, 결국 대규모 무력충돌인 제1차 세계대전(이하 1차대전)이 발발하였다. 전시체제 속에서 각국의 구성원들은 국익을 위해 단합하며 맹목적인 충성을 행동화하였고 중국에는 전쟁의 도구로 소모되었다.

제국주의 발원지인 유럽이 주전장이라는 점, 총력전 개념의 탄생과 첨단 무기체계의 실험장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는 1차대전의 경과에 이목을 집중하였

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강화를 갈망하였던 일본은 1차대전을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식민지 조선과 중국의 민족해방운동가 및 지식인들은 당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건으로 이를 인식하며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일본이 경험한 1차대전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특성상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다(永井煥生, 1998; 도베, 2003; 후지와라, 조성운, 2010; 박완, 2013; 김춘식, 2013; 최아진, 2014). 대표적으로 심호섭은 총력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적 대비와 군 근대화를 통한 무기체계 개발이 1차대전의 교훈이었음에도 이와는 반대로 전략적 ‘단기결전’과 전술적 ‘백병돌격’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육군의 상황을 분석하였다(심호섭, 2013). 또한 신호승은 1차대전을 계기로 『제국 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이 개정되었으며, 시베리아 원충지대 형성을 고려한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간도 침략이 자행되었음을 논증하였다(신호승, 2018). 정상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료에 기반하여 일본의 칭다오 점령과 태평양 일대 독일 식민도서 장악을 분석하였으며, 과격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영일동맹을 해제시켰고 끝내 진주만 공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정상수, 2013). 이들 연구는 1차대전을 기점으로 일본의 전략 및 전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참전 배경과 전투 경과를 세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최근에는 신문을 통해 1차대전 양상을 살피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김남경, 2020). 격전지 파리에 체류(1913. 4.~1916. 7.) 중이었던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이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연재한 기고문을 엮어 간행된 『전쟁과 파리(戰爭とパリ)』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인데,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전개되는 보도의 각축과 유럽 민중의 심리 변화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정부 또는 군의 영향을 받는 종군 특파원과 관전무관의 보도 및 보고서와는 달리 전시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둔 ‘리얼리티’라는 점에서 대전의 양상을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는 신선한 시도였다.

한편 1910~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 구명을 위해 세계 사조를 변화시킨 주요 사건으로서 1차대전은 3·1운동과 연동하여 빈도 높게 언급되어 왔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전후 베르사유체제를 키워드로 하여 제국주의 시대의 균열이 전장 외곽인 식민지 조선에 미친 영향을 지식인의 사유와 인식(전상숙,

2004; 허수, 2009; 윤영실, 2017; 최우석, 2019), 민족운동의 발발(한국역사연구회, 1989; 신용하, 2001; 김희곤, 2014; 도면희, 2018;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2019), 식민지배정책의 변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전상숙, 2014). 이외에도 1차대전 전후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를 조망하거나(박정현, 2009; 박섭, 2014; 김윤희, 2019), 재한 선교사의 1차대전에 관한 의식을 애국주의의 틀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안교성, 2014). 요컨대 사상 유입과 제도 변동의 외적 배경, 사회 제 분야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계기로 1차대전을 다룬 것이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처럼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1차대전을 직간접적 연구 소재로 삼아 왔다.

그 가운데 특히 이태훈은 식민지배 이후 조선인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소재로 세계사적 사건인 1차대전에 주목하였다(이태훈, 2012). 총독부 관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의도된 선전으로 식민지배를 강화하려 하였지만, 조선 학생층을 대상으로 발간된 『청년(靑年)』과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하였던 『학지광(學之光)』에서는 오히려 제국주의 지배의 내적 취약함이 제기되었고 당대 국제질서의 근본적 개편과 개조를 전망하며 식민지배를 비판하였다. 당시 ‘대민족국가론’을 내세우며 체제에 협력한 장지연과 같은 지식인도 있었지만, 일제와 상반된 세계인식과 운동 논리를 형성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는 것이 해당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인식과 동향에 논의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신보』의 1차대전 관련 보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총독부가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전쟁에 관해 어떠한 논조를 이어 나갔는지는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전술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일본의 1차대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에 전달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독부 관변지였던 『매일신보』를 주 사료로 활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매일신보』의 운영은 총독부 일문판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에 예속된 상태로 이루어졌으며,¹ 일본인 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아

¹ 조선 언론정책을 발안 및 실행하였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심복인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를 경성일보 사장에 추천하였고, 그는 1914년 8월 1일 경성일보사 책임자로 취임하였다. 이후 도쿠토미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아베가 사무에 매진하고 각하의 희망에 부합하여 기쁘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도쿠토미의 감독 아래 아베는 1918년 7월까지

래 기능인으로 종사하였던 조선인에 의해 제작되었다(장석홍, 1992: 46). 이를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1차대전 발발부터 연대론이 내세워진 시점까지 정보전달 차원의 평면적 보도와 의도를 내재하는 기획 보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이 기대한 성과를 거둔다면 당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식민통치 논리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II. 제1차 세계대전 관망 및 참전 논리 구축

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황 주시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자 유럽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양국 간의 개전이 다가오고 유럽 전체가 전시 상황으로 점차 돌입하는 형국을 보았다. 『매일신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에 관련하여 일본이 국외중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내용과 실크 폭락과 이에 대한 비관적 전망,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 시장에서 재외공채가 폭락하였음이 동시에 보도되었다.² 사라예보 사건 이후 『동서전보(東西電報)』에는 연일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에 관한 기사와 7월 위기에 관련된 내용이 연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양국의 위기와 유럽의 전운은 ‘계엄’, ‘동원’, ‘선전포고’ 등의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통상적인 흐름에 관한 사실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후 전쟁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 배경, 경과를 종합하고 이를 살피는 가운데 전쟁이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조망하는 기사가 등장하였다.³ 이는 기존 파편화되어 있던 초기 전쟁에 대한 기사를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사라예보 사건, 오스트리아의 국민적 공분, 민족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당시 유럽 내에 존재하던 동맹체제가 발동하

신문사 사장을 맡으며 테라우치 총독의 식민통치를 지원하였다(이형식, 2016: 161-163).

² 「塙塞風雲과 我國」이라는 제목에 하위 내용으로 ‘帝國은 局外中立’, ‘爾糸暴落과 悲觀’, ‘在外公債의 暴落’이 다루어진다. 『每日申報』 1914. 7. 29. 「塙塞風雲과 我國」.

³ 『每日申報』 1914. 7. 30. 「塙塞戰爭은 何故로 起하는가」.

여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 또한 소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 독일이 몰트케에 의해 수정된 쉐리펜계획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유럽 내에서도 낙관주의가 횡행하고 있었다. 구조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독일과 영국조차도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여 가며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이미 발칸, 중동, 아프리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독일은 영국이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 믿었고,⁴ 영국은 독일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최아진, 2014: 16). 양국의 동상이몽은 결국 독일의 벨기에 공격과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로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전장의 핵심 국가들조차 오인과 오판을 연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전쟁의 객체였던 일본의 방관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⁵

이후에도 단순 정보전달과 동향 파악 차원에서 전쟁 경과는 계속해서 언급된다. 이후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현 추이를 개관하는 사실이 등장하였다.⁶ 러시아와 프랑스 동맹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맹의 대결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는 가운데, 동양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일본은 연구하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어진 동일 제목의 연재 사실에서는 게르만과 슬라브 민족의 갈등이 언급되며, 각국 정치적 상황과 외교 관계, 연속된 선전포고의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합종연횡으로서 동맹체제와 협상체제의 연원을 설명한다.⁷

⁴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적극적 건합 정책으로 영국의 패권에 맞서려고 하였으나, 재정압박과 외교적 고립으로 세계정책을 조정하면서 영국과의 대립을 포기하였다(박상섭, 2014: 223).

⁵ 『毎日申報』에서는 8월부터 타국의 국외 중립선언 소식에도 주목하는데,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루마니아, 중국, 불가리아의 전쟁에 관한 중립이 연속적으로 보도되었다. 『毎日申報』 1914. 8. 4. 「東西電報-伊太利, 嚴正中立宣言」; 『毎日申報』 1914. 8. 4. 「東西電報-瑞典 諾威 丁抹, 3國 中立宣言」; 『毎日申報』 1914. 8. 7. 「東西電報-米國 局外中立 宣言」; 『毎日申報』 1914. 8. 9. 「東西電報-羅國 中立宣言」; 『毎日申報』 1914. 8. 9. 「東西電報-歐亂과 支那, 局外中立條規」; 『毎日申報』 1914. 8. 17. 「勃對露: 勃國 嚴正 中立」.

⁶ 『毎日申報』 1914. 8. 3.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一)」.

⁷ 『毎日申報』 1914. 8. 5.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二)」; 『毎日申報』 1914. 8. 6.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三)」.

애초부터 양면전쟁을 기획하였던 독일은 러시아의 병력 동원 속도를 고려하여 8군으로 이를 견제하고 나머지 1~7군으로 서부전선에서 속전속결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방비가 덜한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진군시켜 측면에서부터 프랑스 군대에 압력을 가하고 메츠를 축으로 하여 회전문 원리를 통해 일익 포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대응과 네덜란드의 중립국 인정에 따라 새롭게 참모총장으로 부임한 몰트케는 병력 배치를 조정하고 전 전선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벨기에로의 진군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영국이 보장하는 중립국 벨기에를 독일이 침공하였기에 영국은 최후통첩을 보냈고,⁸ 일본 역시 동맹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구주운동(歐洲動亂)과 조선(朝鮮)에 영향(影響)」 기사가 보도되었다. 부제는 ‘구라파주의 큰 난리와 우리 조선에 관계될 바’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歐洲動亂과 조선에 영향〕

8월 1일경부터 구라파의 여러 강대한 나라가 서로 얼크러져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전보가 우리 신문으로 전파됨에 인심이 자못 흥흥하여 대국을 관망하는 중 구라파와 상업과 공업이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깊은 나라에는 상공업과 금융계에 큰 공황이 일어나 세계가 들썩거리는 터이나 우리 조선에는 원래 상도도 지극히 멀고 또한 관계도 매우 적어 아직 아무 영향이 별로 없고 다만 조선에 와서 있는 서양사람들 중에 그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금광 탄광 등 그들 외 사업 중에 약간 공황이 있을 뿐이라.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건대 조선은 상업상 물화를 수입하는 것이나 수출되는 곳이 대부분은 내지인데, 아직 내지에서도 특별한 영향이 현저하지 아니하므로 조선에서도 또한 평시와 다름이 없고 각 은행과 시장에서도 아무 다른 현상이 아직은 없다더라.⁹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진행 중이던 1차대전을 ‘동란’ 정도로 표현한 것과 일

8 「每日申報」1914. 8. 7.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四)」.

9 「每日申報」1914. 8. 7. 「歐洲動亂과 朝鮮에 影響」.

본 본토에도 특별한 경제적 파장이 없으므로 조선의 경제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단편적이지만 일본과의 통상에 좌우되는 조선 경제의 종속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시와 다르지 않으니 동요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은 조선에서의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독부의 의도였다고 판단된다.

2. 영일동맹 이행 및 동양 평화를 위한 참전

한편 1914년 8월 4일 영국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전쟁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¹⁰ 그 내용은 일본이 독일에 대해 적의가 없고 친선이 오랜 시간 이어졌으나, 영국의 동맹국으로 부득이 적대적 행위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¹¹ 여기서 자오저우만(膠州灣)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독일 세력범위인 산둥성(山東省)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 일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영국은 대독 선전포고에 앞서서 1914년 8월 1일 런던 주재 일본대사 이노우에 가쓰노쓰케(井上勝之助)에게 “우리가 참전한다면 프랑스와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동맹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¹² 영국은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서 소형 순양함 5척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동아시아로 확장된다면 일본이 영국 무역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정상수, 2013: 252-253). 따라서 이미 일

¹⁰ 『毎日申報』 1914. 8. 8.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五)」.

¹¹ 영일 양국에 의해 대치된 신조관에서 군사동맹적 성격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조약 체결국 중 어느 한쪽이 도발하지 않았음에도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공격 받거나 또는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의 침략적 행동으로 인해 해당 조약 체결국이 본 협약의 전문에 기술한 영토권 또는 특별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교전에 이르게 되면, 앞에서 말한 공격 또는 침략적 행동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다른 한쪽의 체결국은 즉시로 그 동맹국에 와서 원조, 협동해 전투에 가담해야 한다. 강화도 역시 쌍방이 합의한 후에 행한다.”(최덕수 외: 486)

¹² Grey to Greene, 1914. 8. 1., *British Documents on Origin of the War 1898-1914*, 11, 486; 정상수(2013: 252)에서 재인용.

본 내에서는 참전의 규모와 목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실제로 1914년 8월 8일 긴급 각의에서 외상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는 영일동맹의 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독일 근거지 일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과 지위 향상 등의 근거를 들어 수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와 칭다오(靑島)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참전에 협의하였고 내각과 원로들을 설득시켰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비롯한 원로들은 중국의 호의에 대해 우려하였기 때문에 참전의 명분을 분명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가토, 2003: 161-163). 이에 외상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는 직접 “일본은 일영동맹조약에 따라 중립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구태훈, 2009: 336).

일본의 참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매일신보』에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보도하였다. 영일동맹 규정을 해석하고, 영국과 공동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일본(日本)의 참가(參加)를 요(要)하는 시기(時機)」라는 기사에서 언급되었고,¹³ 같은 날 영국의 웨이하이(威海), 독일의 칭다오, 일본의 뤄순(旅順)이 동시에 담긴 지도가 등장하였으며, 전운이 동양에 미치게 되어 제국 순양함대가 출동한다는 기사도 등장하였다.¹⁴

정치권의 합의와 군사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일본이 전쟁에 즉각 참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영국의 ‘제한적’ 참전 요청과 일본의 ‘적극적’ 참전 목표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독일 순양함을 제어하는 등 영국의 전쟁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의 점령지 확보를 통해 자국의 동양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일본 외상 가토는 심지어 영국 외교부장관 그레이(Edward Grey)에게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간섭하여 보호국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레이는 중국의 통합과 독립 보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토도 일본의 참전이 평화를 저해하는 독일의 무력 제한을 위함이라며 원론적

13 『毎日申報』 1914. 8. 9. 「日本の參加を要하는時機, 英獨開戰과 外務大臣談」.

14 横須賀進水部 소속 상비 순양함 鞍馬(배수량: 14,600噸, 함장: 淺田대좌) 출동준비명령을 받아 8월 7일 제1함대소속에 解隊되어 순양전함 筑波(13,750噸, 함장: 竹内대좌)와 함께 南航명령을 받았다. 『毎日申報』 1914. 8. 9. 「帝國巡洋艦隊出動」.

입장을 취했고, 주중 영국대사 조르단(John Newell Jordan)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일본의 참전 반대 의사를 언급하며 일본의 중국 내 단독 군사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일본은 칭다오를 점령한 이후에 중국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의 참전을 승낙하였다(정상수, 2013: 254).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논쟁은 1914년 8월 11일에야 해소되었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중국 보호국화까지 대외적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일본이었지만 『매일신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중국과 일본 양국이 일신동체(一身同體)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주의 전국이 종결되는 시점에 ‘황화론(黃禍論)’이 발발할 수 있으니 동양인으로서 이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다음 날 사설에서도 전후 황화론의 재기 가능성은 등장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동양인의 단합 차원에서 거론되었다.¹⁶ 이를 통해 일본의 이중적 태도와 인종대결 구도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대결 구도의 공고화는 명분상 대외적 위기 속에서의 동양인 결집을 통한 ‘내부 안정’이라는 목적과 실질적인 일본의 대륙진출을 통한 ‘영토확장’이라는 목적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 이처럼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시아연대의 기획은 일본에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였다. 따라서 참전을 위한 논리구축에 인종론적 의미 부여는 지속되었다.

다음 날인 1918년 8월 13일 사설에서는 영일동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일 해군이 칭다오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자오저우만 출병이 필요하고 대륙에 진출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개전 논리가 등장하였다. 또한 국가의 위력이 성대하니 신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본업에 충실할 것이 언급되었다.¹⁷ 여기서 동아시아로 병력을 전용하는 것이 불가했던 독일과의 전쟁에서 사전부터 승리를 확신하는 일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한편 1914년 8월 13일 독일 해군참모본부는 일본과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만약 일본이 영국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영국의 무력

15 『毎日申報』 1914. 8. 11.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七)」.

16 『毎日申報』 1914. 8. 12.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八)」.

17 『毎日申報』 1914. 8. 13. 「歐洲의 戰亂과 東洋의 安危(九)」.

과 식민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꺼렸던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였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 칭다오를 반환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정상수, 2013: 254-255). 애초부터 독일이 계획한 동양함대 순양함을 통한 영국 물자수송 방해 전술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중립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었다.

『매일신보』에서는 자오저우만이 극동의 화근지(禍根地)로 언급되었다. 독일이 해상에서 상선을 위협하고 육상에서 중립국 통과를 방해하며 중국에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출병해야 한다는 기사가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권위국으로서, 또한 영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신조를 이행하기 위함이 그 이유로 언급되었다.¹⁸ 그리고 1914년 8월 17일 호외에서 일본이 독일에 보낸 최후통첩이 1면을 장식하였다.

[獨逸에 對한 最後通牒]

4개조의 요구=자오저우만 인도=군함의 무장해제=포대의 철폐 요구에 불응하면=선전포고는 23일 일본정부는 일영공동작의 교섭이 성립하였기에 15일 저녁에 아래와 같은 의미의 최후통첩을 독일정부에 발송하였더라.

일본정부는 일영협약의 장조에 의거하여 동양평화를 확보할 필요상 독일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권고적 요구를 함.

1. 독일군함은 지나해에서 철폐할 것
2. 지나에 환부할 목적으로써 즉시 교주를 일본에 인도할 것
3. 9월 15일 내로 자오저우만 내의 군함은 무장을 해제하고 포대를 철폐할 것
4. 위 요구에 대한 회답은 8월 23일로 위한할 것

그런즉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는 23일이 될 것이라더라.¹⁹

당시 일본이 독일정부에 권고한 것은 즉각적 전함 철수, 자오저우만 인도, 1달 기간 내에 군사기지 해제였고, 이에 관하여 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한편 해당 일 신문에는 일본의 전쟁 준비와 군사력을 선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

¹⁸ 『毎日申報』1914. 8. 14. 「膠州灣과 帝國」.

¹⁹ 『毎日申報』1914. 8. 17(호외). 「東西電報-獨逸에 對한 最後通牒」.

다. 미국이든 독일이든 능히 일본의 위력적 진가를 충분히 알고, 일본이 동양에서 대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조선인은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업을 즐기면 된다며 여러 소문에 동요하지 말 것을 덧붙였다.²⁰ 실제로 미국 언론은 일본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혹평하였으나, 미국은 자오저우만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하였다.²¹ 이는 칭다오 전투에 대한 영국의 참전이 공표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만족을 표명하였다는 것이 기사로 등장하기도 하였고,²² 작전 활동 범위가 중국해로 국한될 것임을 알리기도 하였다.²³ 이는 전쟁의 정당성 확보와 제한전쟁 추구의 표명 차원에서 보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목적은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권한을 빼앗고, 1895년의 삼국간섭에 대한 보복과 함께 이것을 계기로 중국침략의 실마리를 잡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야카사키, 2004: 217). 당시 칭다오의 독일인이 2,500명에 불과했고, 산둥성 각지에 진출한 일본인이 약 2만 명 있었다는 점, 1910년대 초반부터 산둥 각지의 인구, 무역, 주요시설, 교통 설비에 대한 조사와 연구보고서가 다수라는 점, 1차대전 직전이라 볼 수 있는 1914년 7월 27일 관동도독이었던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중장이 칭다오를 시찰했다는 점은 다방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충분히 보여 준다(이준희, 2005: 331-338). 그러나 전쟁 발발 후, 일본의 전반적인 행보는 대전과 동시에 일본이 팽창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가보다 전황의 추이를 살피면서 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²⁰ 『毎日申報』 1914. 8. 17(호외). 「帝國의 威力」.

²¹ Admiralstab to Jagow, 1914. 8. 22, Politisches Archiv des Austwartigen Amts WK Nr. 13, 1; 정상수(2013: 255)에서 재인용.

²² 『毎日申報』 1914. 8. 19. 「東西電報-支那政府 滿足」.

²³ 『毎日申報』 1914. 8. 20. 「東西電報-帝國 對獨 行動範圍」.

III. 일독전쟁 공보 및 일본 중심의 동아연대론 주창

1. 일독전쟁의 발발과 군사적 성과에 대한 공보

일독전쟁에 관하여 일본 정국의 원로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이번 구주의 대혼란은 일본 국운의 발전에 대한 천우(天佑)이므로 동양에서 일본의 이권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하며 중요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가토, 2003: 162). 방식의 차이만 있었을 뿐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결국 국정운영 세력들에 의해 합의된 결론은 일본의 국제위상 제고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위해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매일신보』에서는 1914년 8월 24일부터 일독전쟁(日獨戰爭)에 관한 내용을 1면에 전면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전쟁과 연결되는 외교, 군비, 군 인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²⁴ 이는 크게 자오저우만 확보를 위한 칭다오 전투와 태평양 독일 식민군도 확보라는 두 가지 갈래를 형성하는데, 통상 전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태평양의 독일 식민군도는 마리아나·캐롤라인·마셜 등의 섬들인데, 만약 일본이 이 섬들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횡단 루트를 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가토, 2003: 162). 애초에 영국은 독일의 해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제한적 참전을 원한 것인데, 일본은 태평양에서 독일함대를 격멸시키는 목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점령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일함대에 대한 추격 의지는 『매일신보』 전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영국이 바랐던 ‘순양함 격멸’이 아니라 ‘거점 확보를 위한 격퇴’에 중점을 둔 해상작전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독일에 대해 최후통첩을 발송한 일본은 영국 정부의 칭다오 공략작전 참전 의사를 수용하여 1914년 8월 17일 영국 육·해군 관계자들과 회합하여 작

²⁴ 일독전쟁의 카테고리를 가진 일련의 기사들은 『每日申報』 1914년 11월 8일 신문 2면에서 칭다오 함락을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칭다오 함락기념 사진과 일독전쟁과 남양 방면에서의 정보도 다루어졌다.

전계획을 협의하였다(박영준, 2020: 192-193). 이를 토대로 공동작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일본 육군에서는 제18사단 보·포병 5만 1,700명, 야포 및 산포 등 140여 문, 항공기 5기 등을 동원하며, 영국육군은 일본군의 지휘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해군은 자오저우만 해역을 봉쇄하는 작전이었는데, 일본 제2함대의 순양함 6척, 포함 4척, 해방함 9척, 수뢰정 31척, 특무함정 18척 등 68척의 함정과 영국 구식전함과 구축함, 병원선 등 3척을 합류시키는 것이었다(平間洋一, 1998: 157-159; 박영준, 2020: 193 재인용).

1914년 8월 22일 자오저우만총독 마이어-발텍(Alfred Meyer Waldeck)은 주일독일대사 렉스(Arthur Alexander Kaspar von Rex)에게 조국을 위해 자오저우만 수비병은 조차지를 굳게 지키겠다고 전보하였다.²⁵ 독일 황제 빌헬름 2세(Wilhelm II)는 칙유를 하달하였는데, 조국을 위해 칭다오방위에 진력하라는 내용과 충군 정신을 발휘할 것이 담겨져 있었다.²⁶ 당시 독일의 언론들은 일본의 기회주의적 팽창이 국가 기틀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온 독일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신문 *Bonner Generalanzeiger*에서는 일본을 스스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뻔뻔한’ 존재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Saaler, 2005: 26).

당시 구체화된 작전계획은 자오저우만 일대를 해상봉쇄하고 영국 조차지인 산둥반도 북쪽의 웨이하이에 상륙해서 남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은 1914년 8월 27일 자오저우만 일대를 해상봉쇄하였다.²⁷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국외중립을 선언한 중국의 영토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정상수, 2013: 260-261), 일본은 국제법을 운운하였지만 사실상 사전 통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교전국이 중립국의 영토를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의 지배력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본 육군은 수송선을 통해 9월 2일 룡커우(龍口)에 상륙하였다. 이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9월 7일부터 진격을 개시하여 산둥반도 철도의 전 선로 지역

25 『毎日申報』 1914. 8. 22. 「獨軍決死守膠州灣」.

26 『毎日申報』 1914. 8. 27. 「日獨戰爭-독일황제가 勅諭를 下」.

27 『毎日申報』 1914. 8. 27. 「日獨戰爭-자오저우만 봉쇄」.

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육상과 해상의 보급로 차단을 완료하여 독일을 고립시켰다. 이후 독일의 통신망과의 연계방법을 파악하고, 태평양 나우루(Nauro)에 있는 무선전신국을 파괴하였다(정상수, 2013: 263).²⁸ 또한 육·해군 비행기를 통해 독일 병영에 폭격을 감행하기도 하였고, 간헐적인 포격을 통해 피해를 입혔다.

당시 독일 측 전투원은 총 6,000여 명 정도였으며, 육전 병력은 3,650여 명이었다. 이들은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던 외곽수비대, 예비군 대상자, 상업 무역에 종사하는 자원병 등으로 구성되었다. 5개 중대로 구성된 1개 대대 병력이 요새 방어의 핵심이었고, 대형순양함들은 전투 개전 이전에 영국의 보급선을 차단 목적으로 아메리카로 항로를 잡고 이동하였다. 한편 연합군은 육·해군 총합 5만 6,000명 이상의 병력이었으며 전력에서는 압도적이었다(김춘식, 2013: 81-82).

칭다오에서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1914년 9월 25일 시작되었다. 독일은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고 선진화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진군하는 일본 육군을 격퇴하였다. 또한 포함 야구아(Jaguar)와 순양함 카이서린 엘리자베스(Kaiserin Elisabeth)의 함포 일반지원 사격 또한 유효하였다(정상수, 2013: 263). 그러나 『매일신문』에서는 독일군의 전과와 일본군에 대한 피해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일군을 ‘술 안의 물고기’에 비유하고, 독일군이 자기들끼리 오인사격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독일군은 도검을 두려워하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등장한다.²⁹

육·해상로의 봉쇄로 군수 보급 제한과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악전고투하였으나, 일본군의 요새에 대한 파상적 포격과 보병 돌격으로 전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³⁰ 일본은 10월 초 일본 포병연대의 총공세 준비와 봉

28 『毎日申報』 1914. 9. 22. 「日獨戰爭-칭다오 제남간 적의 통신방법」, 『毎日申報』 1914. 9. 24. 「日獨戰爭-獨의 무선전신국 파괴」.

29 『毎日申報』 1914. 9. 27. 「日獨戰爭-청도의 적은 釜中の魚」, 『毎日申報』 1914. 9. 28. 「日獨戰爭-獨軍의 最畏者는 刀劍」.

30 영국 신문 *The Independent*에서는 “자오저우만 주둔 해군과 기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원 혹은 자원한 병력을 합한 총 5,000여 명의 독일군이 칭다오와 근처의 요새들을 방어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포위에 대응할 만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던 독일군이 10배나 많은 연합군을 상대로 무려 74일 동안이나 버텨낸 것은 실로 놀라운 전투력이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독일군의 위력을 설명하였다(김춘식, 2013: 83).

쇄함대의 재정비를 도모하였다. 이후에는 독일에게 항복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1914년 11월 5일 기사에는 칭다오의 독일 기지에서 항복을 주장하는 것은 곧 총살이고 책임자들은 모두 필경 자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³¹ 그러나 작전 지속 한계의 초월로 독일은 결국 11월 7일 항복하게 되었다.

[絶對降服, 아무 조건없이 항복]

자오저우만 항복에 관한 두 편 군사의 서로 의논한 내용은 아직 자세한 기별을 듣지 못하며 항복에 관한 조약 12조목은 일본 사령관의 손에 있은즉 분명히 말할 수 없으나 독일군은 마지막 의탁하던 여러 포대가 아주 파괴되었으므로 아무 조건 없이 항복한 것이요. 이 항복할 조약이 성립되면 신미 사령관은 정식으로 입성식을 행하고 두 편에서 정리위원을 내어 무기와 집과 기타 물건을 넘기는 정리를 자세히 행할 터인즉 적어도 3주일은 걸리겠고 이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군대라도 성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규정인즉 일반인민이 자유로 자오저우만을 중립하기는 이달 금음 정도 되겠더라.³²

[降服과 入城式]

자오저우만의 독일군은 아무 조건 없이 항복하기로 되었으므로 즉 전연히 일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생금된 군사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데 ‘알페크’는 군인의 면목으로 군도를 빼앗김은 매우 섭섭하다 말하였고, 두 편의 사자가 의논한 결과 9일 오전 10시를 기약하여 두 편 군사 사이에 무기와 기타, 집을 주고받은 후 10일 오전 10시 신미 사령관은 입성식을 행한다더라.³³

이로써 일독전쟁은 종결되었고, 상하이(上海)와 톈진(天津)에 이어 중국 제3의 무역항으로 여겨지던 칭다오가 일본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사실 영국을 제외한 열강들은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팽창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국과 조율한 것이 앞서도 언급했듯이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 문서에 일본의 자오저우만 확보가 ‘중국에 환부하기 위한’ 과정이라

31 『毎日申報』 1914. 11. 5. 「膠州灣은 항복치 아니하리라」.

32 『毎日申報』 1914. 11. 9. 「絶對降伏, 아무 조건없이 항복」.

33 『毎日申報』 1914. 11. 10. 「降服과 入城式」.

는 것을 명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중 이미 일지교섭국(日支交渉局)을 설치하여 대중국 외교의 중심점을 마련하였고,³⁴ 점령 이후에는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일본의 자오저우만 점령을 장기화시키고자 하였다.

[膠州灣은 直時 還附치 아니함]

칭다오가 함락된 후 독일의 조차지되는 자오저우만과 밋그열도, 광산 등을 여하히 처분할는지 세상 사람의 가장 주목하는 바인데 이에 대하여 소문을 거한즉 이 문제는 구라파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처분되지 못할지라 전쟁이 다 끝난 후 강화담판으로 결단하기까지는 일본이 관리할 것이다. 또 전일 일본이 지나에 돌려보낼 목적 운운이라 한 통첩을 독일에 보냈으나 독일이 그를 듣지 않고 개전까지 이르러 일본이 지나에 돌려 보낸다 하는 의미는 사라졌는즉 자오저우만은 얼른 지나에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하더라.³⁵

우선 일본은 1차대전이 종결되고 강화회담이 진행되어야 이를 중국에 돌려보낼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독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전쟁에 이르렀기 때문에 통첩 내용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칭다오가 일본에 편입된 직후부터 인근 지역 및 중국 기타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대거 칭다오로 유입되었고, 조선과 일본에서도 급격히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14년 316명에 불과했던 칭다오 거주 일본인 수는 1915년 2월 7,400여 명이었고, 동년 4월에는 1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동년 9월 말에는 1만 4,000여 명에 달하였는데,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수치다(이준희, 2005: 333-334). 이처럼 일본은 외교적·경제적으로 해당 지역 장악의 실질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획득한 태평양 도서에 대해서는 『매일신보』상에 새롭게 획득된 영토의 경계에 대한 보도, 해당 지역의 물산에 대한 소개, 산업 및 수산물 시장 개척, 지질조사, 여행 및 관광, 토착민들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34 『毎日申報』1914. 9. 30. 「日獨戰爭-日支交渉局 설치」.

35 『毎日申報』1914. 11. 10. 「膠州灣은 直時 還附치 아니함」.

다. 그러나 미국, 호주, 심지어 영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은 감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본 국방정책의 핵심인 참모본부는 유럽의 동태를 적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직을 파견하고,³⁶ 이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보수집기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은 진행하였다. 이로써 시군사조사위원회(時軍事調査委員會)가 출범하였고, 1915년 1월부터는 해당 사무소를 설치해 구체적인 전쟁 정보를 수집하였다.³⁷ 그러나 이후 영국의 유럽 전역으로의 육·해군 전개 요청에 대해 일본은 조국의 방위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永井煥生, 1998: 10-11). 이를 변곡점으로 일본은 1차대전기 군사적 팽창을 멈추었고, 의식 차원의 팽창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2. 안정적 식민통치와 대륙진출을 위한 연대론 주조

일독전쟁 발발이 가시화되고 실질적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총독부는 식민통치 차원에서 조선 내부의 안정도 도모하였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생업 충실을 요구하는 논조는 1차대전에 대한 『매일신보』의 기본적 기조였다고 볼 수 있다(이태훈, 2012: 196). 이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식민통치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총독부는 조선 내부의 다양한 풍설에 대해서도 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時局과 愚民眩惑]

조선인 가운데 중류사회 이하의 사람들은 몰상식한 까닭으로 유사한 때를 당하면 각기 자기의 억측으로 그릇된 말들을 꺼내어 와전되어 바람 소리와 학이 우는 하찮은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어져 민심을 선동하는 악습이 있음은 뜻있는 사람들의

³⁶ 『密大日記』(大正8年), 『臨時軍事調査の爲当分の内陸軍官衛学校に定員』(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455400).

³⁷ 『歐受大日記』(大正5年1月), 『陸軍省受領 歐受第三四号 臨時軍事調査委員事務所開設ノ件』(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4598300).

개탄하는 바이지니와 지금 구주의 풍운이 날로 더욱이 급격하여 장차 동양까지 영향이 파급하여 일미전쟁이 일어나거나 일독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 서울 뒷골목 사이에서 어리석은 인민 등은 망상과 오론을 주작하는데, 만일 개전되는 경과이면 조선인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금화 백 원씩을 지급하고 병졸로 전장에 출전하게 한다하여 의구심을 야기하는 폐습이 종종 발견되니 가소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일본정부가 독일정부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발송하고 장차 선전하고자 하여 조야가 일치하여 이에 협력함은 모두 외교문제에 관계된 것이다. 자오저우만은 높게 형성된 지형인데 독일에서 여러 해 전부터 해군근거지로 만들어서 이를 정벌하려면 군함 12척이면 더할나위 없으리요. 육군은 혹 출병하더라도 제국 현재 육군의 30분의 1만 하여도 족할터인데 어찌 자격 없는 조선인으로 출전케 하리요. 혹 용기가 있는자가 출전을 지원하더라도 물리치고 불응할터인즉 공연히 뜬소문에 현혹치 말고 각기 안도하고 즐거이 일하는 것이 타당할지로다. 전례로 말할지라도 러일전쟁 시에도 이러한 말들이 유포되었으나 한때의 낭설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경계할 만하다.³⁸

위 기사에서 일본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이 조선인들 사이에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조선인이 군 소집 대상이 되어 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미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러일전쟁 당시에도 조선인을 출병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낭설을 경계하고 생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선보병대에서 인원 보충을 위해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일독전쟁 참전을 위한 조선인 병력 확보로 오해받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소문을 믿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각자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종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독부는 전술한 소요의 원인을 인민들에 대한 정보전달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에서는 1914년 8월 19일을 기점으로 동년 10월 6일까지 세계 각지로부터 취합되는 전쟁 관련 전보 중 몇 가지를 추려 순한글로 번역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동일 신문지상에 같은 내용이

38 『每日申報』 1914. 8. 19. 「時局과 愚民眩惑」.

39 『每日申報』 1914. 8. 23. 「何其誤解之甚也」.

다른 지면에 각각 국한문혼용과 순한글로 동시에 기록되었던 것이다.⁴⁰ 이후에는 조선인의 오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일신보사 측의 기사 번역의 의도가 정보전달의 확대가 맞았다면 이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인 출병이 논해진다는 것은 낭설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인의 소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소요 방지,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조선인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총력 전쟁이 아닌 제한전쟁에서 굳이 조선인까지 동원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조선인의 불안 제거라는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자원출정을 희망하는 조선인의 의용병 청원의 내용에 기인한다.⁴¹

이후에는 출정한 일본인의 아내를 돌보고 소유 전토도 관리해 주는 조선인들의 따뜻한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⁴² 중추원 직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군인들을 위해 기금을 취합하기도 하였다.⁴³ 또한 출정군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 관련 기사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본고 기사에 감격 군인에게 기금한 여자]

경성 종로통 이정목 53번지에 사는 양소사 오십 세 된 여인과 제동 91번지에 사는 신회경 35살된 여인과 인사동 126번지에 사는 신경기 28살 된 여인 등 3명이 요새 의논하고 군인후원회를 조직하여서 성력을 다하여서 돈을 많이 모아 이번 출정 군인에게 다소간 담배값이라도 보조할 계획으로 받기하였으나 별로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마지 못하여 3명이 각각 돈 10원씩 내어 합계 30원을 수합하여 북부 경찰서로 가서 바치고 청원한 사의를 듣건대 지난번 每日申報에 게재된 대구 사는 김성녀의 아름다운 뜻으로 자기 저축금중 150원을 기부한일을 보고 더욱 나라의 울타리

⁴⁰ '이면전보 번역', '한문전보 번역'이라는 소제목으로 1차대전의 개황은 1914년 8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⁴¹ 충북 보은에 사는 송석진은 전장에 나아가 적병 하나라도 죽여 막중한 일본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출전 지원서를 썼다고 하였다. 『每日申報』 1914. 8. 28. 「자원출정」.

⁴² 『每日申報』 1914. 9. 6. 「출정군인에 대한 조선인의 동정」.

⁴³ 『每日申報』 1914. 9. 10. 「추원직원의 미거」.

되는 출정군인의 후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화 30원을 모아 바친다 함으로 북부경찰서장은 그 여인 등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상히 여기었다 하더라.⁴⁴

[文武官의 特志, 조선군인의 마음]

공주헌병대 보병청의 서광국씨는 일본과 덕국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날마다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며 전장에 나간 군인에 대하여 동정을 금치 못하여 군수금을 기부코자 자기의 십월분 월봉 전부인 54원 16전을 내어 놓고 그 돈 보낼 방법을 조선주차군사령부 출납관리 일등주계 길하향태랑씨에게 부탁하였으므로 그는 곧 경기도청에 교섭하여 그 절차를 마쳤더라.⁴⁵

[김군수의 기부금]

논산군수 김영진씨는 향자에 모친상고를 당하였을 때에 친척 친구에게서부터 받은 답례로 금번 홀병부에 대하여 전장에 나간 군인 위로로 돈 기부하기를 당국에 청하였더라.⁴⁶

[하리스박사 기부금]

감리교회 조선감독 하리스박사는 출정군인가족 구호의 의미로서 지나간 15일 총독 부외사국을 소개하여 금화 30원을 기부하였다더라.⁴⁷

인용한 기사들의 주체는 조선 여자, 조선 군인, 조선 관료, 외국인 선교사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매일신보』는 이들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인 또한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주역이라는 식의 인식과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주입 또는 선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식의 관변매체로서의 기획 보도는 군인후원회의 원호(援護)에 대한 대대적 선전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경성·평양·고양·인천·대구·마산·김해·진주 등 각지의 군인후원회 활동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⁴⁴ 『毎日申報』 1914. 9. 10. 「본고 기사에 감격 군인에게 기금한 여자」.

⁴⁵ 『毎日申報』 1914. 10. 17. 「文武官의 特志, 조선군인의 마음」.

⁴⁶ 『毎日申報』 1914. 10. 17. 「김군수의 기부금」.

⁴⁷ 『毎日申報』 1914. 9. 17. 「하리스박사 기부금」.

한편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서는 출정군인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 회장이 직접 조문하고 위로의 돈을 보내 가체의 곤란함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쿄(東京) 애국부인회에서 온 기별에 의한 것이었다.⁴⁸ 이외에도 출정군인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거나, 전장에 위문대(慰問袋)를 보내 주거나, 군인 유족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⁴⁹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원호활동을 지속하였다.⁵⁰

이들의 활동은 성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는데, 회원 수와 자금이 척도였다.⁵¹ 이외에도 성대한 전승 행사와 조선인의 만세 행렬,⁵² 일본육군사관학교 조선인 장교들의 졸업 소식,⁵³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한 조선인 장교의 일상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⁵⁴ 이처럼 전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인에게 직간접적인 전쟁 참여에 관한 역할을 부여하고 연대감을 강화하여 질서 내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화시키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도모하였다.

1914년 12월을 기점으로 『매일신보』상 유럽 전역에 관련된 내용은 급감하면서 전황을 개관하는 단편적인 기사만이 나타난다. 1914년 8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신문 2면 최상단에 큰 글씨로 자리하며 1차대전의 양상을 내용별로 정리하였던 「세계적대전란(世界的大戰亂)」은 1914년 11월 5일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48 『毎日申報』 1914. 9. 22. 「세계 대전장에서: 애국부인회 활동」.

49 『毎日申報』 1914. 10. 7. 「팔천개의 위문대」; 『毎日申報』 1914. 10. 10. 「위문대가 삼만개」; 『毎日申報』 1914. 10. 11. 「출적한 군인 위문대」; 『毎日申報』 1914. 10. 17. 「위문대가 일만개」; 『毎日申報』 1914. 11. 4. 「위문대 일만 팔천」; 『毎日申報』 1914. 12. 27. 「군인유족에게 떡」.

50 애국부인회 조선본부를 주제로 하여 시기별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박윤하(2018)와 같다.

51 1915~1916년 사이 회원 40%가 증가하였는데, 조선인 애국부인회 회원은 전년도 대비 약 125% 증가하였고, 일본인의 경우 23% 증가하였다. 일독전쟁의 군사원호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회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애국부인회 회원 증가

연도	조선인	일본인	계
2015	1,764명	8,179명	9,943명
2016	3,952명(+2,188명)	10,061명(+1,882명)	14,013명(+4,070명)

출전: 『毎日申報』 1916. 1. 29. 「애부회의 성적」.

52 『毎日申報』 1914. 11. 10. 「용산의 불야성」.

53 『毎日申報』 1915. 6. 19. 「금번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54 『毎日申報』 1916. 1. 14. 「용산연대의 장소위」.

또한 일자별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전쟁을 정리하는 기사도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전란일기(大戰亂日記)」이다. 1914년 10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914년 12월 27일까지 총 38편 연재되었다. 여기서 1914년 6월 28일부터 동년 10월 22일까지 각국의 외교적 갈등, 선전포고, 전쟁 참가, 주요 전투, 지휘관 인사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지금까지의 전쟁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 전쟁에 참여한 기간에는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이후에는 ‘구주’라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매일신보』의 특징이다.

전쟁을 종결한 일본은 전쟁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열강들의 차기 충돌지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선점은 중요 과업이었다. 사실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맹주론에 기반하여 서양의 식민화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킬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일본의 도덕적 의무라는 식의 아시아 문명 담론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박상수 외, 2014: 36-38). 그러나 이는 1895년의 삼국간섭, 1904년의 러일전쟁, 1907년 미국에서의 ‘일본인이민제한법’ 등을 거치면서 침략주의적으로 변질되었다(김경일, 2011: 51-52).

당시 유럽에서는 총력전에 기반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조야에서는 중국 진출을 위한 적기이니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특히 흥룡회의 대표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중국문제 해결에 관한 비루한 의견(對支問題解決鄙見)」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를 천재일우의 기회라 하며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1차대전 종료되기 전에 중국을 압박하여 동방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상일, 2002: 305-307). 결국 일본은 1차대전을 통한 전쟁이익을 확실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에서의 패권 지위를 확보하기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를 작성하였고, 중국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⁵⁵

『매일신보』에서도 「21개조 요구」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는데, 위안스카이(袁世

⁵⁵ 이는 총 5호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5호는 중국의 정치·재정·군사 고문으로 일본인을 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였다(유인선 외, 2014: 268-269).

凱) 대총통과 히오키 마스(日置益) 특명전권대사가 회견한 사실과 중국의 국무경, 외교총장, 육군총장, 시종무관장 등 기타대관들이 소집된 특별회의가 보도되었다.⁵⁶ 이후 위안스카이는 일본 이외 각국 고문을 소집하여 의견을 듣기도 하였는데, 일본 요구에 대한 극렬한 거절이 중론이었다.⁵⁷ 당시 일본은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해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대의 각 오를 언급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실한 성의를 표할 시기라고 하였으며, 유연비어를 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⁵⁸ 미국의 중재로 21개조를 일부 조정한 「일화조약(日華條約)」이 체결되는 5월까지 『매일신보』에서는 일지교섭(日支交涉)의 경과를 연일 다루며 그 추이를 살피기도 하였다.

이후 총독부는 1차대전을 토대로 조선병합이 세계적 대세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민지배의 합리화를 강화하였고,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국가와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유럽 중심의 국제관계 자명성 상실을 거론하며 앞으로 인종 대결이 심화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총 9편으로 연재된 사설 「구주대전(歐洲大戰)과 흥아책(興亞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주대전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구주의 열강권력이 동아시아의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해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국제적 신기원(新紀元)이 도래할 것이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⁵⁹ 이어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국약방(小國弱邦)이 존위(存位)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에만 치우쳐 주변국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오직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 힘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은 망국의 사례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가 언급된다.⁶⁰ 개별 국가의 이익에 따라 세력균형은 언제든지 파해칠 수

56 『每日申報』 1915. 1. 22. 「歐洲大戰亂及其他情報-袁政府의 密議」; 『每日申報』 1915. 1. 23. 「원총통의 苦慮」.

57 『每日申報』 1915. 2. 11. 「歐洲大戰亂 及其他情報: 袁總統 各國 顧問召集」.

58 『每日申報』 1915. 3. 24. 「日支交涉과 朝鮮(下)」.

59 『每日申報』 1917. 1. 24. 「歐洲大戰과 興亞策(一)」.

60 『每日申報』 1917. 1. 25. 「歐洲大戰과 興亞策(二)」.

있다는 국제관계에서의 현실주의적 시각이 돋보인다.

또한 일본과 조선은 일신동체이며 조선 땅은 판도(版圖)이고, 조선 인민은 천황의 적자(赤子)라고 언급하며 국민적 일치단결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특히 산업의 발달, 교육의 진보, 인문의 개발과 같은 물질적 문명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자각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⁶¹ 이는 국가의 존망을 같이한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양자가 조화(調和), 동화(同化), 포합(抱合)하여 국제경쟁의 대세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구주전란을 은감(殷鑑)으로 삼아 국민적 일치를 당부하는 것으로 볼 때,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1차대전을 활용하는 총독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열강의 균세(均勢)에만 의존한다면 대전이 종결 이후 세계적 호란의 중심이 되어 중국 분할의 기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경고하며, 장래를 위해서 안위존망(安危存亡)에 선 지금 정신적으로 자각하여 타력주의(他力主義)를 배척하고 자력주의(自力主義)로 돌아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⁶² 또한 구주문명을 폭력성에 기초하여 이를 타자로 설정하고 ‘아황인(我黃人)’이라는 표현을 통해 연대의식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내정과 외교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야 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⁶³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구주대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호상반목(互相反目)의 태도를 거두어 국제적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는 기사도 게재되었다.⁶⁴ 여기에 제휴의 대방침이야말로 중국의 부활과 진흥을 도모하고 양국의 친선을 확대하여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⁶⁵

이외에도 인도적 제국주의를 그 사명으로 삼아 아시아에서 먼로주의를 실행하여 세계의 평화와 문명의 발달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내 국가들의 존립을 위해 아시아자치주의를 표방하는 내용도 있었다.⁶⁶ 그러나 당시 일본이

61 『每日申報』 1917. 1. 26. 「歐洲大戰과 興亞策(三)」.

62 『每日申報』 1917. 1. 30. 「歐洲大戰과 興亞策(五)」.

63 『每日申報』 1917. 1. 31. 「歐洲大戰과 興亞策(六)」.

64 『每日申報』 1917. 2. 1. 「歐洲大戰과 興亞策(七)」.

65 『每日申報』 1917. 2. 2. 「歐洲大戰과 興亞策(八)」.

66 『每日申報』 1917. 2. 3. 「歐洲大戰과 興亞策(九)」.

‘서양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의 타파’를 주장했던 것은 당위적 구호였고, 실질적 저의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이었다는 점에서 연대론의 근원에 자리한 일본의 자국중심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1차대전이라는 공동의 위기를 양분으로 하여 내외적으로 확장된 아시아 공동체주의는 보편타당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표피 내에서의 구현 방법론이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종대결 구도와 지역주의는 일본의 철저한 기획으로 주도된 팽창 논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이와 직결되어 있었다. 요컨대 일본이 1차대전으로부터 도출한 교훈은 ‘연대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축’이 아닌 ‘침략을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구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중매체인 신문을 통해 장기간 다방면으로 주입되었는데, 조선에서 『매일신보』가 그 첨병(尖兵)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IV.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은 당대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사회 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지만 무력충돌의 주체가 제국주의 열강이었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참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도 하나의 전역을 이루어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각 지역에서의 전보를 종합하여 대중들에게 전쟁의 경과를 보도한 매체는 『매일신보』였다. 당시 한글로 쓰인 종합 일간 신문으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지배력과 전달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신문은 압도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⁶⁷ 특히 총독부 기관지라는 특징은 식민지배 정책과 일면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기사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요구한다.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는 1차대전에 관한 『매일신보』의 기사를 분

⁶⁷ 최근 『조선신문』 역시 ‘日鮮兩文’을 표방하며 한글을 활용하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조선신문』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장신(2018)과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2020)가 있다.

석하고 식민지 조선에 정보가 전달되는 양상을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이 참전논리를 구축하고 제한전쟁 승리를 통해 실질적 이권을 확보하였고, 식민 통치 안정과 대륙진출을 위한 연대 형성의 수단으로 전쟁을 활용한 것을 논증할 수 있었다.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1차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일본의 정치적 입장과 의도와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본고는 의의를 지닌다.

1차대전이 발발한 직후 일본은 전쟁의 확장성에 주목하였으나 관망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심지어 중립선언까지 하며 전쟁이라는 변수가 일본이 형성한 세계에 미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맹국 영국의 참전을 기점으로 전쟁 참여의 명분을 획득하였고, 역내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힘의 공백지대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일본은 영일동맹 이행과 동양의 단합을 내세우며 참전 논리를 구축하였고, 독일 지배 지역인 자오저우만과 태평양 군도들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최후통첩과 독일의 거부로 일독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후방지역 안정이라는 수혜를 본 영국과 보조를 맞추었는데, 이는 열강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부정적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전쟁 범위의 제한과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문지상에서는 칭다오전투에 관하여서는 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군의 위력과 우수한 작전수행 능력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독일 지배 지역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일본은 식민통치의 공고화와 대륙진출의 의식화를 도모한다.

조선에서는 전쟁이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조를 일관하며 식민통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운데, 대외적 위기를 토대로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기획도 추진되었다. 특히 전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각 단체의 원호활동을 소개하며 식민지배의 이탈 방지를 넘어 적극적 추종자를 양산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양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를 벗어나 아시아 연대론을 주창하며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황인 대(對) 백인'이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아시아의 단합을 촉구한 지역주의는 1차대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면 당위성을 지니는 구호였다. 그러나 내재

된 본연의 의도가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 확보였기 때문에 일본이 주조한 거푸집은 여전히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었다기보다는 지역의 ‘파괴와 혼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고일: 2021년 2월 8일 | 심사일: 2021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참고문헌

『毎日申報』

『密大日記』(大正8年), 『臨時軍事調査の爲当分の内陸軍官衛学校に定員』(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455400)

『歐受大日記』(大正5年1月), 『陸軍省受領 欧受第三四号 臨時軍事調査委員事務所開設ノ件』(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4598300)

가토 요코(加藤陽子) 저. 박영준 역. 2003.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구태훈. 2009. 『일본사과노라마』. 재팬리서치21.

김경일. 2011.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창비.

도베 료이치(戸部良一) 저. 이현수·권태환 역. 2003. 『근대 일본의 군대』. 화랑대연구소.

박상수 외. 2014. 『동아시아, 인식과 역사적 실재: 전시기에 대한 조명』. 아연출판부.

박영준. 2020.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신용하. 2001. 『3·1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학교출판부.

야가사키 히데노리(失ヶ崎秀則). 2004. 『일본의 평화사상연구: 근대일본의 대국주의와 소국주의』. 선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020. 『조선신문 1911~1915』. 소명출판.

유인선 외. 2014. 『자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디스북.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한국역사연구회.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2019. 『3·1운동 100년』. 휴머니스트.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저. 서영식 역. 2012. 『일본군사사(上): 戰前篇』. 화랑대연구소.

平間洋一. 1998. 『第一次世界大戦と日本海軍,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Saaler, Sven. 2005. "The Imperial Japanese Army and Germany." *Japanese-German Relations, 1985-1945*. New York: Routledge.
- 김남경, 2020. "미디어를 통해 본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 고찰: 시마자키 도손의 『전쟁과 파리(戦争とパリ)』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12, 163-191.
- 김윤희. 2019. "3·1운동 발생의 경제적 요인과 동아시아의 연쇄." 『일본학』 49, 31-62.
- 김춘식. 2013. "칭다오 전투와 제1차 세계대전." 『독일연구』 26, 67-96.
- 김희곤. 2014.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한국독립운동." 『현대사광장』 3, 10-25.
- 도면희. 2018. "3·1운동 원인에 관한 성찰과 제언." 『역사와 현실』 109, 453-491.
- 박상섭. 2014. "국가의 존폐를 건 마모전, 제1차세계대전." 『지식의지평』 16, 216-228.
- 박섭. 2014.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한국경제: 기업설립 붐, 생활수준, 산업정책." 『현대사광장』 3, 72-91.
- 박완. 2013. "일본 육군의 대전의 교훈 형성 과정과 스토리텔링." 『스토리앤이미지텔링』 6, 65-109.
- 박윤하. 2018. "식민지 시기 '애국부인회조선본부'의 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현. 2009.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외무역과 중국경제의 변화." 『동양사학연구』 109, 191-224.
- 신효승. 2018.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와 간도침략." 『만주연구』 26, 109-133.
- 심호섭. 2013.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근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대응." 『군사』 86, 199-220.
- 안교성. 2014. "제한 서구 개신교 선교사와 제1차 세계대전: 한국선교지(Korea Mission Field)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5, 195-227.
- 윤영실. 2017. "식민지의 민족자결과 세계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53-108.
- 이준희. 2005. "사학부: 근대 일본인의 산동 진출." 『중국학보』 51, 323-345.
- 이태훈. 2012.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187-227.
- 이형식. 2016.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 8~1918. 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사총』 87, 151-197.
- 장석홍. 1992. "일제의 식민지 언론정책과 총독부 기관지《毎日申報》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409-456.

- 장신·임동근. 2017. “1910년대 매일신보의 쇠신과 보급망 확장.” 『동방학지』 180, 317-352.
- 장신. 2018. “연세대 소장 『조선신문』 ‘한글판’ 해제.” 『근대서지』 18, 116-129.
- 전상숙. 200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313-349.
- _____. 2014.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의 변화와 의미.” 『현대사광장』 3, 26-50.
- 정상수. 2013. “1차 세계대전의 동아시아에 대한 파급효과.” 『서양사연구』 49, 249-280.
- 조성윤. 2010.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 『耽羅文化』 37, 127-155.
- 최아진. 2014. “제1차 세계대전,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오늘날의 함의.” 『현대사광장』 3, 10-25.
- 최우석. 2019. “식민지 조선인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3·1운동.” 『사림』 70, 161-189.
- 허수. 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37-54.
- 永井煥生. 1998. “第一次世界大戦における欧州戦線派兵要求と日本の対応.” 『防衛研究所戦史部年報』 1, 9-21.

Abstract

The Trend of the *Maeil Shinbo* (毎日申報) Reports on the First World War: Outbreak of the War to the Exhortation for Asian Solidarity

Junho Moo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World War I was delivered to Joseon through the *Maeil Shinbo* (毎日申報). Japan declared neutrality when World War I broke out. However, the German-controlled regions of Zhouzhao Bay and Namyang Islands were later secured by presenting the logic of the war. Japan actively sought to cultivate followers beyond preventing the breakaway from its colonial rule. In the meantime, Japan argued for Asian solidarity beyond the imperial order centered on the West. This was an effort to enhance solidarity. Japan insisted on regionalism, which called for the unity of Asians by forming a confrontation between the Yellow and the White, using racism. However, the fundamental purpose was to secure Japan's status as a hegemonic power in Asia.

Keywords | *Maeil Shinbo* (毎日申報), World War I, Asianism, Yellow Peril, Asian Solidarity